



ACC는 올해도 아시아성을 모티브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6월 16일까지 복합전시 1관에서 열리는 '해항도시 속 혼합문화' 전.

아시아성 모티브 창·제작... 시민과 공유

2024년 ACC-재단 프로그램

- '아시아 현대미술 거장전'
- 무슬림 복식문화 '살람, 히잡'
- 무대기술 체험 '신비한 극장'
- 빅도어시네마·아시아컬처마켓 등

아시아 현대 미술 거장전, 히잡전, 우수공연 상영 신비한 극장, 브런치 콘서트, 슈퍼 클래식, 빅도어 콘서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올해도 아시아성을 모티브로 한 창·제작,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다채로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ACC는 중장기발전계획(2023-2027년)에 따라 장기적 시각으로 콘텐츠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도시문화(2023-2024년), 생활양식(2025-2026년), 아시아의 문명사(2027-2028년) 등 3단계가 그것.

올해는 먼저 6월 16일까지 복합전시 1관에서 '디어 바바요냐: 해항도시 속 혼합문화'를 진행한다. 아시아 도시문화 연구 일환으로 해항도시 혼합문화를 주제로 한 융·복합 전시다. 예술 작품을 통해 새로운 문화로 재탄생되는 아시아 해항도시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살피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

'이슬지음'은 미술의 언어를 통해 아시아 건축과 사회를 조망한다. 작품들은 건축을 모티브로 창·제작했으며 기둥 구조물과 중정, 회랑 등 아시아 건축특성을 담은 복합전시 2관의 공간적 특징을 활용했다. (오는 7월 21일까지)

오는 2월 25일까지 복합전시 3·4관에서 진행되는 '가이아의 도시'는 '식물'과 '인간'의 관계를 사유하는 전시다. 인간과의 공존을 실천하는 식물의 능동적 의지를 다루며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에 대해 고민을 나눈다.

낯선 '히잡' 문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전시도 마련됐다. 아시아문화박물관 특별전시 '살람, 히잡' (3월 17일까지)이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2에서 펼쳐지며 무슬림의 복식문화 중 가장 상징적인 의복인 '히잡'을 조명한다.



ACC재단의 빅도어시네마 장면.

<ACC재단 제공>

이외에도 ACC는 '포커스 기획전시-아시아 현대미술 거장전'도 기획 중이다. '아시아 현대미술 거장전'은 장르와 매체를 넘나들며 주요하게 다뤄지는 동시대 작가의 블록버스터 개인전이다. 복합전시 5관에서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대관전시'인 '아세안 파빌리온'이, 복합전시 6관에서는 'ACC네트워킹 기획전시-이주의 도자'가 관객을 맞이한다.

올해는 다채로워진 공연으로 관객을 만난다. 12월까지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에는 국내외의 우수 공연영상을 상영하는 '수요극장'이 운영된다.

2월과 8월에는 국내 최대 블랙박스형 극장1의 무대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신비한 극장'이 방 문객을 맞이한다. 신비한 극장은 예술가와 관객을 위해 무대 뒤 어둠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ACC 극장사람들과 그들이 직접 만드는 공연을 무대 전면에 내세운다.

이강현 전당장은 "2024년에도 ACC는 실험성, 대중성을 두루 아우르며 핵심테마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문화전당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문화예술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방문객들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도 대중 친화적 문화콘텐츠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먼저 ACC 신년음악회'가 오는 17일 관객을 찾아온다. 통합전당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2주년을 기념한 이번 공연은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물론 대중적이고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을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휘자 여자경과 함께 세계 거장들과 함께 활동 중인 소프라노 황수미, '팬텀싱어'에 출연해 '레데아모르'를 결성한 바리톤 김병민, '미라클라스'의 멤버인 테너 정필립이 출연해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클래식, 발레, 국악,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유명 예술가들이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토크 콘서트인 ACC 브런치콘서트는 올해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오전 11시) 열린다.

세계적 명성의 아티스트의 내한공연을 통해 고품격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ACC 슈퍼 클래식도 기대가 된다. (3월과 10월, 12월 3차례) 또한 연극, 뮤지컬, 발레, 오페라, 무용 등 여러 장르의 작품성 있는 우수한 공연을 발굴하고 선별해 선보이는 ACC 초이스와 ACC 피니를 통해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실력과 인지도를 갖춘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ACC 빅도어 콘서트, 예술극장 빅도어의 대형스크린으로 즐기는 야외영화 상영회인 ACC 빅도어시네마도 예정대로 펼쳐지며 아시아 각국의 공동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마켓인 아시아컬처마켓도 진행된다.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체험관 상설전시 및 공간 개편을 통해 관람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어린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글·사진=박성현 기자 skypark@



오건탁 전 광주시립미술관장이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당선작 결정에 대한 미술인들의 입장'을 낭독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설계 재공모하라”

지역 미술계 촉구...공모·소통방식 비판 목소리

지역 미술계가 최근 발표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당선작 결정에 대해 전시관 설계 재공모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술계는 9일 오후 3시 동구 예술의거리 관선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공모방식과 소통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영성 미술계 원로를 비롯해 강연균 전 광주시립미술관장, 김영태 전 광주미술협회장, 윤만식 전 광주민예총 회장, 김병택 광주시민협 회장, 김영화 광주전업작가회장 등 지역 미술계 작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당선작 결정에 대한 미술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광주미술인들은 광주시의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당선작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광주미술인들과 문화인들이 즐기게 요구해온 세계 유명 건축가에 의한 지명 공모를 통해 건축물 자체가 광주의 랜드마크이자 세계 문화명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미술계는 국제 공모인데도 공모기간과 심사가 짧은데다 미술인들과 소통 없이 일방

적,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는 광주미술인과 시민들 그리고 광주비엔날레를 사랑하는 많은 문화애호가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국제설계공모라는 이름으로 공모작을 획기적 결정,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며 "비엔날레라는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참신성과 실험성도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술인들은 스페인 빌바오구겐하임, 두바이의 루블 아부다비 등의 미술관이 건축물 자체로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핫스페이스로 부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모작 결정 무효화에 따른 보상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또 이로 인해 건축시기가 1, 2년 늦어지더라도 기필코 세계적 위상을 갖춘 건축가에 의한 지명 공모를 통해 광주시민, 광주비엔날레를 사랑하는 문화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며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민 대상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길위에 김대중'



'나의 올드 오크'

“이명한 소설가는 ‘골방’ 작가 아닌 사회적 실천 지향한 어른”

광주전남작가회의 '작가' 33호 특집 '이명한 소설가 삶과 문학'

이명한 소설가(92)는 광주전남 문단을 대표하는 원로 작가다. 지난 1975년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했으니 올해로 등단 50년째를 맞았다.

이승철 시인은 이명한 소설가에 대해 "작가로서 이명한의 미덕은 '골방'에서 글만 쓰는 작가로 살지 않았다"는 점이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이명한 작가는 군사독재 타파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문학적 실천과 행동을 병행해왔다. 분단체제에 살고 있는 일국의 작가로서 통일문제와 민족 통일성 회복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사회적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고 평한다.

광주전남작가회의(작가회의)가 발행하는 기관지 '작가' (통권 33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소설가 이명한의 삶과 문학'을 다뤘다. 이승철 시인이 '최고령 원로작가 이명한의 문학서 생애'를 주제로 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다. 이 시인은 그를 가리켜 "특정 정치적



이명한 소설가

력에 기대어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죽대와 자존을 지켜낸 한국문단의 원로이자 지역사회의 어른으로 후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작에는 김영삼 평론가의 '시간의 지층을 넘어', 이철영 작가의 '할아버지의 등', 정장철 소설가의 '세상이 망가질수록 슬거리는 많다' 등의 글이 실렸다.

초대시에는 성향숙 '원피스', 하성만 '그였다면 좋았을 텐데' 등 시가 수록됐다. 회원작품 시에서는 강대선 '안녕, 코뿔소', 김애숙 '아빠와 빨래',

박현우 '은목서가 있는 풍경', 신남영 '마음의 귀를 닫지 못하는', 염장권 '망치를 이해하는 방식', 이서영 '납골당길', 이승희 '환상의 시간', 이지담 '감자 볶음쌈', 정양주 '산밭 일 년', 함진원 '신성악사', 황형철 '동백이 피었다 안 피었다 금금은 하고'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단편소설은 김미용 작가의 '친밀한 가족'이 선을 보이고, 동화는 안오일 작가의 '달식이의 숲'이 독자들을 만난다.

서평에는 김완 시인이 오성인 시집 '이 차는 어디로 갈니?'를 조명한 '기억의 윤리성과 도시의 서사', 이승희 시인이 신남영 시집 '명왕성 소녀'를 조명한 '침묵의 바다를 건너온 환생의 말뉘', 이호복 시인이 한중근 시집 '달과 지구 아내와 나'를 분석한 '신의 정원, 장인당의 불빛' 등의 글이 실렸다.

한편 김호균 편집위원장은 이번 호 발간에 대해 "대지에서 태어나 대지 속에 산 사람들과 그들의 언어, 그들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며 "인간의 시야에서 대지를 복원해내고 같이 호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

예술영화로 문화 감수성 충전하기

광주극장, '길위에 김대중'·'노 베어스' 등 4편 상영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 '길위에 김대중'부터 작은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개막작 '클레오의 세계'까지..

광주극장이 선보이는 예술영화를 감상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충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극장은 오는 10일, 17일 네 편의 영화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첫 영화는 오는 10일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과 맞물려 개봉하는 기념영화 '길위에 김대중'.

유신정권과 신군부 세력에 반대해 파란만장한 한국사의 궤적을 걸어온 김대중 전 대통령을 초점화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그가 청년 사업가로 성장했던 시절부터 1987년 대권 주자로 출마했던 이야기를 모두 담았다. 미공개 자료인 이희호 여사의 육중 면회 장면과 첫 번째 부인의 동생인 차은경씨의 육성 증인 등을 볼 수 있다.

같은 날 이란 출신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직접 출연하는 다큐 '노 베어스'도 개봉 예정이어서 눈

길을 끈다.

'나의 올드 오크'와 '라이즈'는 17일 관객들을 만난다. '나의 올드 오크'는 영국 북동부 폐광촌에서 구식 펌 '올드 오크'를 운영하는 'TJ'와 이방인 소녀 '아리'의 우정을 그린 드라마로, 공동체의 갈등과 공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라이즈'는 26살 발레리나 '엘리즈'의 성장기를 담았는데 실제 파리 오페라발레단 소속 발레리나인 '엘리즈'가 출연했다.

이외 광주극장에서는 작은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개막작인 '클레오의 세계'도 현재 상영 중이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한국, 프랑스, 유럽, 이란 등 세계 각지를 배경으로 하는 예술영화와 다큐멘터리 등으로 연초 극장가를 채웠다"며 "민주주의, 우정, 예술가의 고뇌 등 다채로운 주제의 작품을 통해 예술영화의 진수를 만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미 기자 rubi@kwangju.co.kr